

## 식민지기 김해 연자루의 변화양상

허 모 영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머리말</li> <li>2. 연자루의 역사성</li> <li>3. 식민지기 연자루의 변화</li> <li>4. 맺음말</li> </ol> |
|--|

### 1. 머리말

본 연구는 영남 3대 누각이라고 전하는 김해 연자루의 위상과 함께 식민지기 연자루의 행방을 찾아보며 그 역사를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남 3대 누각은 김해 연자루와 함께 진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를 지칭하는데 아쉽게도 김해 연자루만 그 흔적이 사라지고 없다. 연자루가 훼손된 시기를 대부분 1932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확히 잘못된 기록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신문자료 등을 통해 식민지기 연자루가 새로운 용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훼손된 시기 또한 알 수 있어 연구의 큰 성과이다.

흔히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경승으로 말한다. 누각이 세워지는 곳도 대부분 강변이나 계곡의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은 곳이다. 진주 축석루는 남강변에 세워져 있고 밀양 영남루는 남천강변에 세워져 물길을 굽어보고 있다. 김해 연자루도 호계천 변에 세워져 있었으나 연자루도 사라졌고,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호계천은 복개되었다.

예로부터 누정(樓亭)은 인간이 자연 속에 잠시 머무르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자 정신을 수양하고 후학들을 교육하며 사람을 만나 회포를 풀거나 또는 이별의 아쉬움을 느끼는 현실의 공간이었다. 역사상 누정에 관한 기록은 400년대부터 나타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신라(新羅)의 제21대 소지왕(炤智王)은 즉위 10년(488)에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했다고 했으며, 제49대 헌강왕(憲康王: 875-885)은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신(南山神)이 나타나 춤을 추니 왕도 함께 추었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 무왕(武王) 37년(636)에는 망해루(望海樓)를, 제30대 의자왕(義子王) 15년(655)에는 궁남지에 망해정(望海亭)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 누정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누정은 주로 왕실을 중심으로 한 위락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조에는 이름난 누각들이 사찰의 부속으로 건립되었다. 영남루가 영남사에 속해 있었고 축석루는 용두사에, 울산 대화루는 대화사에, 평양의 부벽루는 영명사에 속한 누각이었다.<sup>1)</sup> 이들 사찰 누각은 유교를 표방하는 조선조에 들어와 억불정책에 의해 관아를 지을 때 절터를 이용하면서 객사 누각으로 변해갔다. 영남루의 경우도 밀양부 객사인 밀주관의 별관이 되었다. 객사 동쪽에 위치한 김해 연자루 근처에도 객관인 분성관이 있었으며 객사 후

1) 류성룡, 「객사(客舍) 누각(樓閣)의 기능 및 공간성 변화 : 밀양 영남루(嶺南樓)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4, 대한 건축학회, 2018, 72쪽.

원에는 함허정이 연자루와 앞뒤로 위치하였다.

이러한 연자루의 경관을 바탕으로 1장에서는 연자루 제영시들을 통해서 그 역사성을 찾아보고, 2장에서는 식민지기 신문자료를 바탕으로 연자루가 변화해 간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정립되지 못한 연자루의 역사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자루 복원에 있어서 그 기초적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잘못된 기록이 범하는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며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

## 2. 연자루의 역사성

연자루는 가락국 때 건립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구형왕(仇衡王) 9년(531년) 겨울에 연자루가 울며 흔들려 김해 사람들이 모두 놀랐는데, 임자년(532년)에 나라가 망하리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자 왕이 없애도록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연자루를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의 가장 이른 시기는 고려말이다.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연자루 시는 고려말 주열(朱悅 ?~1287)이 남긴 시이다. 주열은 고려 원종 조부터 충렬왕 조까지 경상도 안렴사를 지냈다.

燕子樓亡問幾春 연자루(燕子樓)가 없어진 지 몇 해가 지났는고?  
碧紗珠玉已成塵 푸른 비단(緋緞) 주렴(珠簾) 구슬이 흙먼지가 되었네.  
虎溪嗚咽何時盡 호계(虎溪)의 울음은 어느 때나 다할까  
雲山千年不見人 구름 낀 천년(千年) 산(山)에는 옛사람 하나 없구나.<sup>2)</sup>

주열의 시를 살펴보면 그 이전에 장엄했던 연자루를 보았고,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연자루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주열은 원종 재임기에 충청·전라·경상 3도의 안렴사를 지냈고 1269년 원종 10년에 임연(林衍)의 눈 밖에 나 해도(海島)로 귀양을 갔다. 이후 1276년 경상도 계점사로 김해에 왔다. 연자루는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몽고의 침입은 1231년 1차 침입이 시작되어 1254년 6차 침입까지 이어졌다. 1232년 초조대장경이 그해 소실되었고, 1238년에는 황룡사 9층 목탑도 소실되었다. 특히 6차 침입은 장기적으로 이어졌고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1270년(원종11) 개경 환도가 이루어지고 전쟁은 종식되었으며 고려는 몽고간섭기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연자루도 소실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생전에 주열은 김해를 다시 찾았고 연자루가 없어진 상황을 보고 위의 시를 지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였을 것이다.

연자루는 고려말에 다시 건립된 것을 포은 정몽주(1337~1392)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주열이 김해에서 연자루가 없어진 안타까움을 시로 표현한 뒤 약 100년이 지나 언양으로 유배 온 포은 정몽주가 김해를 들러 연자루 시를 지었다. 언양으로 유배된 것은 1375년(우왕1), 나이 39세 때의 일이다. 언양 귀양 중 김해에서 지은 시들은 주로 연자루와 관련이 있다. 내용을 보면 유배객의 처지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풍물과 유적지, 인물에 얽힌 사연들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들을 언급하고 지난날을 회고하는 정도였다.<sup>3)</sup>

2) 박병출 역, (재)김해문화재단, 『시인, 김해를 그리다』, 도서출판 작가마을, 2009, 22쪽.

3) 강지희, 「언양유배기 포은시의 몇가지 양상」, 『포은학연구』 22, 48쪽.

燕子樓前燕子回 연자루 앞에 제비 돌아오니  
 郎君一去不重來 낭군은 한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다  
 當時手種梅花樹 당시에 손수 심었던 매화나무  
 爲問春風幾度開 묻나니 봄바람에 몇 번이나 피었던가

위 포은의 시에서처럼 당시에 이미 연자루는 복원되었는데, 포은은 김해에서 20년간 종사관으로 근무하며 왜적방어책임을 맡았던 스승인 김득배(金得培 1312~1362)의 시를 차운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야은 전녹생(田祿生 1318~1375)의 시에 차운한 정몽주의 시를 통해 1365년에서 1374년까지는 연자루가 실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녹생은 1365년 7월 24일 계림판관에 제수되었다가, 1366년 3월 18일 밀직제학에 제수되었는데 거문고 연주로 알려진 김해의 기생 옥섬섬(玉纖纖)과 연자루에서 만나 시를 읊어 주었는데 이것을 정몽주가 차운하였다. 전녹생과 옥섬섬과 연자루를 동시에 거론한 최초 작품은 권근(權近 1352~1409)의 「次金海燕子樓詩三韻」이고, 그 뒤로도 김감(金勘)·이근오(李觀吾)·황재영(黃在英)·허훈(許薰) 등 여러 문인들이 시에 전녹생과 옥섬섬이 연자루에서 만났음을 언급하고 있다.

연자루는 1424년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에 김해도호부 객사 동쪽에 연자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조선의 3대 정승의 한사람으로 꼽히는 맹사성(孟思誠 1360~1438)과 증손자 맹석흠(孟碩欽 1429~?), 방손인 맹세형(孟世衡 1588~1656), 그의 아들 맹주서(孟胄瑞 1622~?) 등 한 집안에서 300년에 걸쳐 연자루를 시로 노래하였다. 이 300년 기간 동안 연자루는 변화를 겪게 된다. 맹사성의 시에서도 “可憐燕子如懷古 어여쁜 제비는 옛날이 그리운지 來訪高樓喚主人 높은 누각 찾아와 주인을 부른다” 라고 하여 당시 연자루의 풍경을 노래했다. 증손인 맹석흠의 시에서는 “百年往事憑誰問 백년 지나간 일을 누구에게 비겨 물을까”라는 구절을 통해 당시 연자루가 100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맹석흠의 몰년을 알 수 없지만, 출생년은 맹사성이 사망하기 9년 전인 것을 보면 이 시를 지을 당시는 30년 후라고 추정해 볼 때 1450년에 이미 연자루가 다시 세워진 지 100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몽주가 유배길에 김해를 다녀가며 연자루 시를 지을 당시로 연자루는 고려말에 다시 지어진 것이 확인된다.

연자루는 임진왜란 때 또 전화(戰禍)를 당하여 불탔다. 맹세형의 시는 이 상황을 보여주는데 “遺編高揭擬千年 남기신 글 높이 걸려 천년을 갔을 것을 大廈翻成一炬塵 큰집이 넘어져 불 한번에 먼지가 되었구나”라고 짓구가 그것이다. 맹세형의 생몰년이 1588~1656년으로 임진왜란을 경험한 세대이다. 따라서 맹석흠이 연자루 100년을 노래한 100년 뒤 다시 연자루는 불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연자루는 1677년 김해부사 변국한(邊國翰)이 중건하였는데 당시 규모가 크고 아름다워 경상도에서 제일이라 평가받았다. 이후 1687년 김해부사 이행익(李行益)이 중수하였고, 1718년 김해부사 김중구(金重九)가 중수하였다.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에서 연자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읍성 객사 뒤 북동방향에 표기되어 있다. 이후 1820년에 제작된 김해부내지도, 1832년 간행된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김해부 지도에서 연자루가 확인된다. 이후 1845년 김한익(金漢翼), 1870년 정현석(鄭顯奭), 1876년 정숙속도(鄭翹朝) 등의 김해부사가 중수하였다.

연자루를 노래한 시들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해읍지』, 『한국문집총간』, 『한국역대문집총서』 등에 실려있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연자루 시는 58명의 작가와 99수의 작품이 전한다.<sup>4)</sup> 이는 시인의 감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연자루가 빼어났음을 보여준다.

4) 김현진, 「연자루 제영시 연구」, 『남명학연구』 5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8, 162쪽. 김현진의

### 3. 식민지기 연자루의 변화

19세기 후반까지 시인 묵객들의 서정과 감회를 담아오던 연자루는 식민지기에 접어들면서 변화를 거듭하다가 결국 훼손되고 만다. 본 장에서는 식민지기 연자루의 변화상을 당시의 신문기사와 사진을 토대로 비교 정리하고자 한다.

대한제국기 위용을 자랑하던 연자루는 식민지기에 들어서면서 그 용도가 변화하였음을 아래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진1>과 <사진2>는 연자루가 누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시기이다. 먼저 <사진1>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 사진으로 대한제국기에 찍은 모습이다. 멀리 분산이 보이는데 민둥산이다. 연자루 현판이 보이고 분산이 뒤 배경으로 보이므로 사진을 촬영한 위치는 연자루의 정면인 남에서 북으로 찍었다. <사진2>는 측면에서 찍었는데 연자루는 정면 측면이 모두 각각 4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각형 구조이다. 총 16개의 석주를 세우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웠는데 가운데 6개의 석주가 더 받쳐주고 있어 기둥은 총 22개이다. 현재 연화사에 남아있는 석주를 통해 보듯이 팔작지붕의 웅장한 규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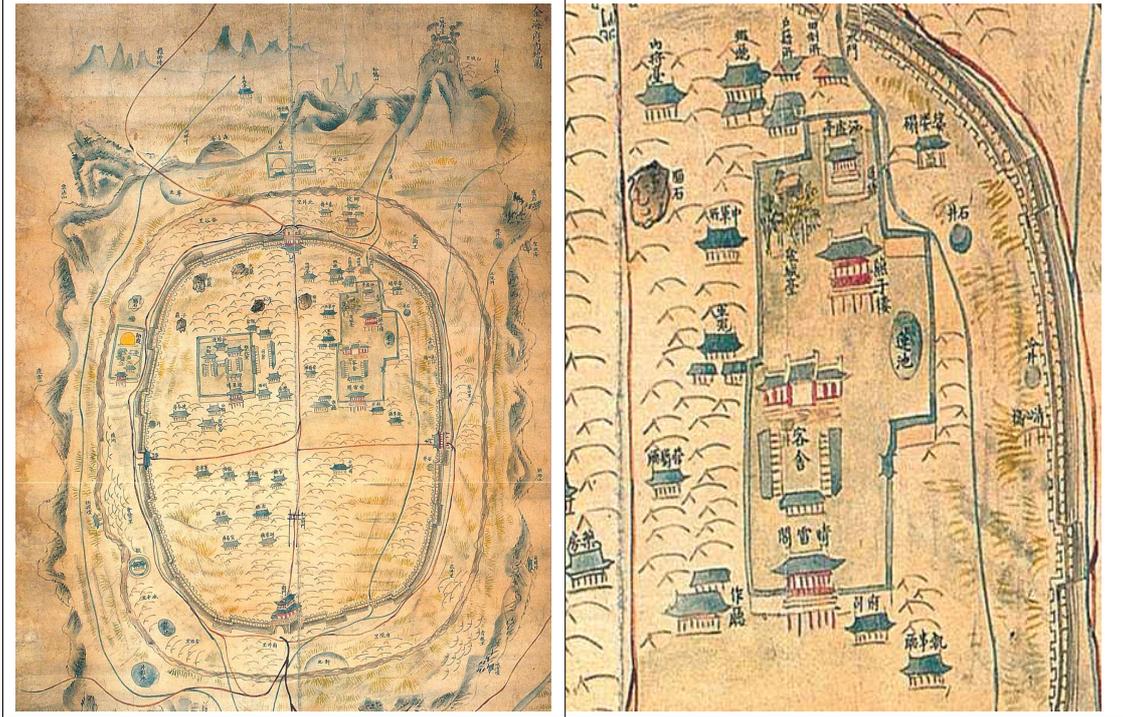
<사진2>는 연자루 옆에 초가 움막들이 들어서 있는데 식민지기 신문기사에 연자루가 ‘결인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하듯 결인들의 움막인 듯하다. 움막 뒤로 출입문처럼 구조물이 붙어있는데 <사진1>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같다. <사진1>의 뒤편으로는 또 다른 기와집이 보인다. 아래 김해부내지도를 보면 연자루 뒤에 함허정이 자리하고 있는데 위 사진 뒤에 보이는 기와집이 바로 함허정으로 추정된다. 연자루 옆으로는 초가집들이 보이며 누각은 2개의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지었는데 단 아래는 물기도 있어 보인다. <사진2>에는 왼쪽 측면으로 나무도 보이는데 호계천으로 생각된다.

두 사진에서 보이는 연자루는 10~2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두 개의 사진에서는 모두 연자루가 더이상 시인 묵객을 불러오는 경승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나라의 국운이 다하여 가는 위기 속에서 한가로이 누각에 올라 시상을 떠올릴 정도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연자루는 점점 쇠락해져 갔을 것이고 읍성 안에 위치한 연자루는 행정적인 공간으로도 유효했을 것이다. 식민지기가 되면 연자루는 트인 공간이 아닌 폐쇄된 공

연자루 제영시 일람표는 부록으로 수록한다.

간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

<지도1> 1820년대 김해부내지도와 연자루  
(출처: 대성동 고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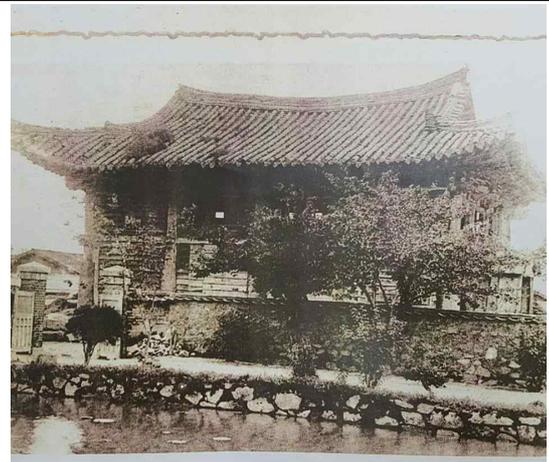


아래 <사진3>과 <사진4>는 연자루에 벽체를 만든 모습이다. <사진3>이 정면인데 위 <사진 1>과 위치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사진2>는 뒷면으로 보이는데 담장을 만들었고 출입문도 보인다. 단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되었고 그 아래는 앞서와 달리 제법 물이 고여있는데 정면과 뒷면 모두 물이 고여 있다. 누각의 아래는 돌이나 나무로 벽을 열기설기 막았지만 2층은 미관을 살린 것 볼 수 있는데 정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창호 문을 달았다.

<사진3> 연자루 정면  
(출처:출처미상)



<사진4> 연자루 뒷면  
(출처: 김해농고졸업앨범(1936년대))



연자루는 식민지기에 접어들어 김해고적보존회에서 관리하다가 수리조합사무소로 활용하게 되었다. 일제는 1917년 수리조합령을 내렸는데 동양척식회사를 통해 대규모 토지개간사업이 진행된 김해지역의 수리조합은 수리조합령이 내리기 이전인 1912년 11월 9일에 창설하였다. 초대 조합장으로 김덕재가 취임했는데 이후 30년간 수리조합장을 역임했다. 김덕재는 통도사 청류동 바위에 그의 아들과 함께 이름을 새겼는데 바위에 이름을 새기고 30년을 수리조합장으로 재임할 정도로 위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고로 연자루가 수리조합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수리조합은 해방이후 토지개량조합으로 다시 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지금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다.<sup>5)</sup>

이후 연자루의 수리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했는지 결인의 소굴이 되어 오다가 개인 창고로 전락되었으며<sup>6)</sup> 1937년 7월 14일 폭우에 의하여 북쪽 귀퉁이가 무너져<sup>7)</sup> 예전의 수려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1935년에 이미 연자루가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고적보존회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굳에도 방관만하고 있어 일반유지들의 비난이 자자하다고 했다. 이 연자루가 넘어지는 날에는 민가의 10여 호가 상할 것이라 하여 근처의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기사이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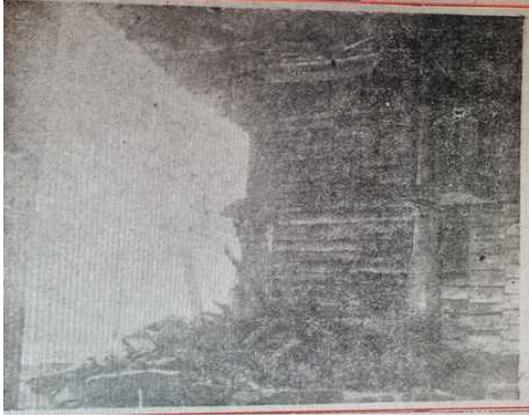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현재 김해에서 발행되는 도서나 인터넷 자료상에는 연자루가 1932년에 훼손되어 서울로 매각되었다고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 정보인지 모르지만 식민지기 신문기사만 보더라도 엄연히 1938년 10월까지 존속한 사실이 나타난다. 기록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제대로 찾지 않고 누군가의 기록을 쫓아가는 습성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p>&lt;사진5&gt; 연자루연혁 안내석</p> 	<p>&lt;사진6&gt; 연자루 석주</p> 
--	--

위 <사진5>는 가야문화연구회에서 만든 연자루 연혁 안내 석판인데 <사진6>과 같이 연자루의 석주 아래에 설치해 두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연자루는 임진왜란에 소실된 것을 1676

5) <https://band.us/band/54451448>  
 6) 『東亞日報』 1938년 9월 16일자 4면 기사  
 7) 『朝鮮中央日報』 1936년 7월 19일자 7면 기사  
 8) 『東亞日報』 1935년 9월 8일자 5면 기사.

년 변국한 부사가 중건하고 1932년에 철거되었다고 새겼다. 이 기록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연자루 석주아래 새겨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호의 의심없이 기정사실로 믿게 되었다. 아울러 연자루 건물은 서울의 요리집으로 팔려갔다고 했는데 이 또한 명백한 오류이다.

<p>&lt;사진7&gt; 1937년 연자루 북벽 붕괴모습 (사진출처: 조선중앙일보)</p>	<p>&lt;사진8&gt; 1938년 연자루모습 (사진출처 : 동아일보)</p>
	

위 <사진7>과 <사진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7년에는 북쪽벽이 무너졌고 1938년에는 김해군 고적보존회에서 연자루를 매각하기 전의 사진이다. 그러나 1936년에는 연자루를 이전할 계획을 갖기도 하였다. 경남도 산림과에서 수로왕릉과 허후능을 확충해 대공원을 건설하고자 노력한 결과 설계안이 완성되었는데 설계안의 내용은 회현리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봉황대와 수로왕릉을 연결시키고 연자루를 왕릉 내에 이전해 가락고전박물관을 설치하는 등 일대 수리를 할 것이라는 계획이었다. 총공사비를 30만원으로 계획하여 머지않은 시간에 완공할 계획이었다고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은 계획에 따라 회현동에 만들었다.

이와 같이 연자루는 왕릉경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실행되지 못하고 천대를 받다가 1938년 9월 김해소방조(金海消防組)에 250원을 받고 팔게 되었다.<sup>9)</sup> 동아일보의 이 기사가 나간 뒤 전 조선 애고가(愛古家)로부터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보존책을 강구한 결과, 서울의 김부필(金釜弼)씨가 (경성부 종로 4정목 거주) 소방조로부터 양도받아 경성부 성북정의 김씨의 별장 안에 이전하게 되었다. 기사에는 1938년 10월 18일부터 신문기사가 나온 25일까지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연자루는 해체하여 서울로 이전하기까지 약 2만원의 경비를 요하는 호화로운 것으로 역시 가장 오래된 건축으로서 경성에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sup>10)</sup> 250원의 건물이 이전비용이 2만원이라는 머리기사처럼 화제가 되었는데 이로써 천년의 연자루는 김해를 떠나 관심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동아일보 기사처럼 천여년의 역사적 건물 김해 연자루가 임종을 맞았고 지난날 호화도 일장춘몽이 되었다. 이후 연자루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전해지지 않았으며, 1932년에 훼철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만 인터넷상에 부유하고 있을 뿐이다.

#### 4. 맺음말

9) 『東亞日報』 1938년 9월 16일자 4면 기사

10) 『경성일보』 1938년 10년 25일자 기사

지금까지 김해 연자루의 역사와 변화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자루는 가락국시대에 지어졌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 기록이 없고, 고려왕조에 들어와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몽고침략에 불탔으며 고려말 다시 건축하여 조선조에 이어오다가 임진왜란으로 또다시 전소되는 불행을 겪었다. 이후 1676년 변국한 부사가 다시 창건하여 많은 시인 묵객들의 명소로 각광을 받아왔다. 식민지기에 이르러 연자루는 누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외벽을 만들어 실내 사무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처음 수리조합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수리조합이 옮겨간 뒤로는 거지소굴이 되었다고 신문에 탄식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후 폭우에 의한 파손 등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며, 1936년에는 30만원의 경비를 들여 가락고전박물관을 짓고 연자루도 왕릉경내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되었다. 결국 김해소방조에 250원을 받고 팔았으나 전국 애호가들의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보존책을 강구한 결과 경성의 김부필씨가 구입하였다. 250원의 건물이 이전비 2만원을 들여 형태를 유지하며 김부필씨의 별장으로 옮겨갔는데 그 이후로 연자루의 소식은 끊겨버렸다.

그런데 이처럼 신문기사로 이슈가 되었던 연자루의 행적들이 누군가 잘못된 기록을 하게 되어 1932년에 훼손되어 요리집으로 팔려갔다고 기록하였다. 현재 연화사에 남아있는 연자루 석주 아래에 있는 안내석판에서 1932년에 훼손되었다고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자루의 행적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라고 본다. 역사의 기록이 얼마나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래서 처음 길을 내는 사람은 늘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연자루 석주는 모두 22개였다. 현재 동상동 연화사에 1개가 온전히 남아있는데 유일하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진9>와 <사진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화사와 서상동 지석묘에는 연자루 석주로 보이는 돌이 남아있었다. 22개의 석주는 분명 인근 집의 부재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연자루 석주의 흔적을 행방을 찾아보며 문화예술교육, 현장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것도 추진해볼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연자루 석주아래에 새겨진 안내판의 문구를 수정하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1932년 연자루 훼손에 대한 기사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세종실록지리지』

『東亞日報』

『경성일보』

『朝鮮中央日報』

김종간, 『가야의 노래』, 도서출판 가야, 2002.

박병출 역, (재)김해문화재단, 『시인, 김해를 그리다』, 도서출판 작가마을, 2009

『개벽』 제34호, 1923.

강지희, 「언양유배기 포은시의 몇가지 양상」, 『포은학연구』 22

김현진, 「연자루 제영시 연구」, 『남명학연구』 5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8

류성룡, 「객사 누각의 기능 및 공간성 변화 : 밀양 영남루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4, 대한 건축학회, 2018, 72쪽.

<https://band.us/band/54451448>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7>